

무더위 땀~... 방구석 1열 '스캅스'

〈스포츠+바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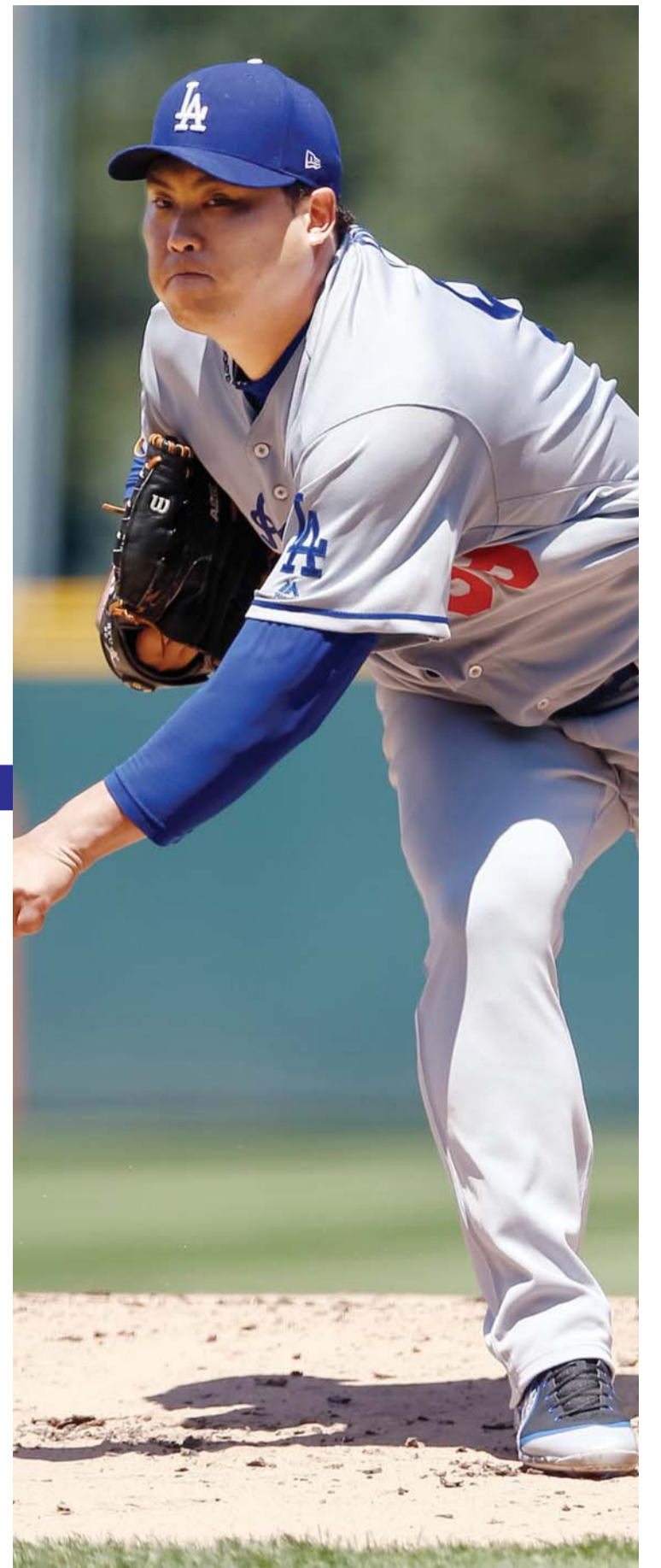


손흥민

아우디컵 이틀 연속 출전 팀 최고 평점...승리 전인

손흥민(27)이 후반 45분을 소화하고 승부차기 키키로도 나서며 토트넘(잉글랜드)의 프리시즌 컵대회 우승에 힘을 보탤다.
손흥민은 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2019 아우디컵 결승전 후반전을 시작할 때 조르주 케빈 쿠두 대신 교체 투입돼 끝까지 뛰었다.
손흥민은 전날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경기에 선발로 66분을 뛰며 이어 연이틀 출전,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 올렸다.
레알 마드리드를 1-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과 전·후반 90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6-5로 승리, 우승을 차지했다.
2년마다 바이에른 뮌헨의 홈 경기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프리시즌 컵대회 아우디컵에는 네 팀

이 출전해 첫 경기 승리 팀끼리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토트넘은 앞선 채 후반전을 시작하며 손흥민,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 등 선수를 대거 교체 투입했다.
손흥민은 후반 12분 페널티 아크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트를 때렸으나 스벤 울라이히 골키퍼에게 막혔고, 1분 뒤엔 일대일 찬스에서 오른발 슈트가 울라이히 발에 걸렸다.
토트넘은 후반 14분 에릭센이 한 골을 보태며 승리에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후반 16분 안-피테 아르프, 36분엔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연속 골을 허용하며 결국 승부차기로 우승팀이 결정됐다.
승부차기 2-2일 때 토트넘의 네 번째 키키로 나선 손흥민은 오른발 슈트를 침착하게 쏘았다.
3-4위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페네르바체를 5-3으로 꺾어 3위에 올랐다.
토트넘은 4일 홈 경기장인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인터밀란(이탈리아)과 인터내셔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른 뒤 11일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대장정에 돌입한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37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뒤 3경기 출전 징계를 받아 맨체스터 시티와의 2라운드까지는 나서지 못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쿠어스필드 6이닝 무실점 평균자책점 1.66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투수들의 무덤’과의 악연을 끊고 평균자책점을 더욱 낮췄다.
류현진은 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1개를 주고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7회 말 페드로 바에스에게 배턴을 넘겼다.
타선 지원을 못 받아 승패 없이 물러난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을 1.74에서 1.66으로 떨어뜨렸다. 투구 수는 80개에 불과했고, 최고 구속은 시속 150km를 찍었다.
다저스는 0-0으로 맞선 9회 초 윌 스미스의 석 점 홈런과 크리스토퍼 네그론의 투런포를 묶어 5-1로 이겼다.
팀 승리에 토대를 쌓은 류현진은 시즌 12승 수확과 한·미 통산 150승 달성을 다음으로 미뤘다. 류현진은

KBO리그에서 98승, 메이저리그에서 51승을 올렸다.
33일 만에 다시 쿠어스필드에 선 류현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투구로 ‘괴물’의 위용을 뽐냈다.
해발고도 1600m 고지에 있는 쿠어스필드에선 공기 저항이 적은 탓에 장타가 쏟아져 투수엔겐 무덤, 타자들에게 천국으로 통하는 곳이다.
류현진이 쿠어스필드에서 점수를 주지 않은 건 6번째 도전 만에 처음이다. 2017년엔 무려 10점(5자책점)을 주기도 했다.
6월 29일 쿠어스필드에서 4이닝 동안 홈런 3방 포함 안타 9개를 맞고 7실점 해 패전의 멍에를 쓴 류현진은 경기 초반엔 체인지업, 중반엔 커브를 주무기로 각각 던져 콜로라도 타자들의 방망이를 유인했다.
류현진은 특히 ‘천적’ 놀런 에러나도를 세 번 모두 범타로 잡아내 후투의 발판을 놓았다.
에러나도는 전날까지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23타수 14안타(타율 0.609)에 홈런과 2루타 4방씩을 쳐 10타점을 올리고 장타율 1.304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내야 땅볼 2개와 외야 뜬공 1개로 완전히 막았다. /연합뉴스

‘잘 나가는’ 광주 vs ‘절박’한 전남

내일 광양서 ‘엘로더비’

눈길을 끄는 ‘엘로더비’가 광양에서 펼쳐진다.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3일 오후 8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올 시즌 성적과 상대전적을 보면 광주의 우위가 점쳐진다.
광주는 올 시즌 19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하면서 K리그 2 최다 무패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0라운드 안양원정에서 1-7 대패를 당하며 시즌 첫 패를 남겼지만 충격은 크지 않았다.
안방에서 치러진 수원FC와의 21라운드 경기 2-0 승리로 대패의 악몽을 지우고 다시 승점 쌓기에 나섰다.
여기에 2위 부산아이파크가 20라운드 경기에서 지면서 선두 광주(14승 6무 1패·승점 58)와의 격차가 9점까지 벌어졌다.
처음 K리그2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전남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사령탑을 선임하면서 ‘승격’에 도전했지만 6승 4무 11패(승점 22)로 8위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도 2연패 중이고 특히 앞선 라운드에서 최하위 서울이랜드의 시즌 2승 제물이 되면서 파비아노 감독이 경질되기도 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광주가 전남을 압도하고 있다.
역대전적에서 10승 5무 5패로 전남에 우위를 보이는 광주는 올 시즌 FA컵 대회 포함 세 차례 맞대결에서도 모두 승리를



광주FC의 윌리안(왼쪽)과 전남드래곤즈의 안병건이 지난 3월 20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4라운드 경기에서 공을 다투고 있다. <광주FC 제공>

쟁겼다.
광주는 앞선 경기에서 ‘브라질 듀오’ 윌리안과 벨리페의 골로 승리를 거뒀다.
벨리페는 4경기 만에 골맛을 보면서 리그 득점 1위(15골)의 모습을 보여줬고, 윌리안은 최근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또 지난 라운드에서 여름을 교체 멤버로 활용하는 등 박진섭 감독은 최호주, 박선주, 여봉훈, 임민혁, 엄원상, 김준형 등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여름철 체력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남이 사령탑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이번 대결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엘로더비’는 전경준 감독대행 체제로 처음 치르는 경기다.
선수단 모두 분위기 반전을 위해 필사적인 각오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을 대표하는 김영욱, 한찬희 등의 활약도 주의해야 한다.
‘꾸준한’ 광주와 ‘절박한’ 전남이 4번째 대결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삼복더위 2연전’ 일정은 KIA편?



내일부터 NC→LG→한화
13일부터 두산→SK→KT
홈경기 일정에 체력 손실 적어

‘2연전 일정’이 KBO리그 순위 싸움의 새로운 변수가 된다.
KBO는 지난 7월 26일 1주일의 올스타 브레이크를 끝내고 후반기 일정에 돌입했다.
그리고 2일 10개 구단 선수들은 다시 한번 ‘전체 휴식날’을 보낸다. 3일부터 2연전 일정이 시작되면서 하루 휴식날이 만들어진 것이다.
KBO리그는 팀 간 16차전씩 144경기를 소화한다.
16번의 맞대결이 이뤄지면서 홈과 원정에서 각각 8경기를 치르게 되어있다. 두 번의 3연전 뒤에 2경기씩 남기 때문에 2연전 일정이 불가피하다.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8월에 짐을 풀고 싸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 2연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은 지방팀은 ‘더위+이동’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만큼 2연전 일정에 대한 고민이 많다.
KIA도 2연전 일정이 반갑지 않은 팀 중 하나다. 다행히 올 시즌에는 이동이 최소화된 ‘괜찮은 일정’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KIA는 3일 N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LG(6·7일)·한화(8·9일)와 홈 6연전을

치른다. 주말에는 그나마 이동 시간이 짧은 대구로 가 삼성과 2연전(10·11일)을 갖는다.
이후에도 다시 홈 6연전이 전개된다. KIA는 13·14일 두산에 이어 SK(15·16일) 그리고 KT(17·18일)를 안방에서 맞이하게 된다.
20일부터는 원정 6연전이 전개되지만 다행히 ‘수도권 6연전’으로 이동거리가 최소화됐다.
KIA는 20·21일 잠실에서 LG를 상대하고, 고척으로 건너가 키움과 22·23일 대결한다. 이어 문막으로 건너가서 SK와 주말 2연전을 가진 뒤 안방으로 복귀한다.
8월 마지막 주도 삼성과의 홈경기(27·28일) 뒤 장원에 다녀와서 다시 안방에서 롯데와 상대하는 일정이다.
‘2연전 강행군’ 핑계가 통하지 않는 최상의 스케줄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8월 남은 25경기 중 15경기가 안방에서 치러진다는 점도 반갑다. KIA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홈강세’다.
지난해 KIA는 안방에서 43승 29패로 0.597의 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원정길에서는 27승 45패를 수확하는데 그치면서 0.375의 승률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홈에서는 25승 25패로 간



터커

신히 5할 승률을 유지했지만, 7월까지 원정길에서도 작성한 성적은 16승 1무 31패에 불과하다. 승률은 0.340.
KIA가 모처럼 잘 짜인 8월 일정에 맞춰 순위 싸움에 힘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